

각색을 활용한 <명저읽기> 수업 실제와 학습 효과*

김영학**

|| 차례 ||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각색을 활용한 수업 설계 및 수업 사례
- IV. 수업의 학습효과 분석
- V.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각색을 활용한 대학 <명저읽기> 수업의 학습 효과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각색을 활용한 수업 모형을 구안하고, 2019년 2학기 J대학 수업에 적용하여 학습 효과 및 시사점을 찾고자 했다. 이 수업을 마치면서 학습 효과를 도출하기 위해 설문을 받고 시험을 본 결과 각색 활동의 학습 효과가 좋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 대학에서 <명저읽기> 교과목을 운영할 때 학습자들이 소설을 희곡으로 각색하는 활동을 하면 텍스트 이해도를 향상할 수 있다. 이 수업 모형은 J대학교 <명저읽기> 교과목의 수업 환경을 고려해 구안한 것이지만 교실에서 소설을 읽는 수업이라면 학습 효과를 낼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둘째, 학습자들은 수업 중에 수행한 ‘각색하기’보다 ‘독후감 쓰기’가 명저 이해에 더 도움되었다고 설문에 답했다. 그렇지만 학습자들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두 활동은 각각

* 이 논문은 2019학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조선대학교 자유전공학부 부교수

나름의 학습 효과를 발현했음을 알 수 있었다. 학습자들은 ‘독후감 쓰기’를 통해 텍스트를 개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각색하기’는 텍스트의 심층 의미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다. 이를 통해 대학에서 명저를 읽힐 때는 ‘독후감 쓰기’와 ‘각색하기’ 활동을 병행하면서 각각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수업 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학습자들이 이 수업에서 수행한 활동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텍스트의 주제 파악을 꼽은 점은 풀어야 할 숙제라고 할 수 있겠다. 이는 명저의 이해에 초점이 맞추어진 이 과목 개설 취지와 동떨어진 설문 결과이기 때문이다. 특히 본 교수자가 텍스트의 주제를 학습자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학습 방법을 수업에 적용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웠다. 이는 본 연구자의 수업 전략이 치밀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이기에 아쉬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수자가 수업 전략을 짤 때 과목의 학습 목표를 더욱 반영해야 하겠고, 학습자들의 텍스트 이해 능력을 감안해 토의 주제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겠다.

주제어 : 명저읽기, 각색, 독후감, 수업 모형, 낭독 공연, 그리스인 조르바, 수업 전략

I. 서론

요즘 대학생들은 성장하면서 볼거리 위주의 시각 매체를 향유하며 살아 온 탓에 백지에 활자만 가득 차 있는 책 읽기를 불편해한다. 학점을 따기 위해 교재는 어쩔 수 없이 읽지만, 교양 습득을 위해 고전을 완독한다는 것은 많은 대학생들에게 매우 어려운 도전이다. 출판업자들도 이런 독서 세태를 반영해 이미지 중심으로 책을 편집하거나, 고전의 경우에는 주로 여러 필자의 글을 집약해 출판한다. 대학생 독자들은 성장기에 이런 책을 주로 접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활자 중심의 장서를 완독하는 행위를 무척

부담스러워하는 것이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서도 독서 관련 프로그램을 찾기 어려운 지 오래 되었다. 경쟁을 부추기는 여러 형태의 오디오 프로그램이 늘어나는 추세인 탓에 독서의 미덕을 전하는 프로그램을 접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책을 낭독해주는 인터넷 개인 방송이 늘어나며 대중의 독서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점을 위안 삼을 수 있지만, 이 역시도 직접 하는 독서를 멀리하게 하는 데 일조하기에 아쉬움이 남는다.

이렇듯 독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확산과 갈수록 열악해지는 독서 환경 탓에 대학에서 고전읽기 수업을 하려는 교수자는 수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학습자들이 독서에 몰입하도록 이끄는 것도 쉽지 않지만, 가장 큰 어려움은 문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독서 태도를 갖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요즘 대학생들에게 그런 독서 태도를 바라는 것은 난망한 일이다.

이렇듯 교육현장의 독서 환경이 열악해지면서 교수자들도 나름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낭독 공연도 이런 고민의 결과이다. 낭독 공연은 연극의 흥미 요소를 교실에서 활용해 학습자의 읽기 동기를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수업 수단이다. 뿐만 아니라 소설을 희곡으로 각색하면서 소설의 주제, 구성, 문체, 인물, 사건, 배경의 여러 요소를 직접 찾아내고, 자신의 상상력을 통해 소설적 인물의 행동과 사고 과정을 이해하고 분석하며, 그 이해와 분석을 바탕으로 희곡으로 각색하는 작업을 통해 소설과 희곡의 통합적 사고력을 제고할 수 있으며 연극으로 공연되는 장면을 상상해 볼 수 있다.¹⁾ 특히 수업에 낭독 공연을 활용하면서 학습자에게 각색 창작을 시키면 학습자들이 흥미를 느끼며 텍스트에 몰입하게 할 수 있다.²⁾ 필

1) 심상교, 「각색을 통한 교육연극 수업」, 민병욱·심상교 편, 『교육연극의 이론과 실제』, 연극과인간, 2001.

자도 역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명저읽기> 수업을 하면서 소설을 희곡으로 각색하는 활동을 하게 했다.

학습자에게 책을 읽히면서 ‘낭독 공연’을 활용한 수업에 대한 연구는 많이 상재되었지만, 그 중에서 ‘각색’을 활용한 수업 연구는 드물다. 이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심상교는 교육 연극 수업 모형을 4차시로 구성하고, 각색을 하는 실제 단계별 학습 내용을 항목화해 제시했다. 주제, 인물, 사진, 배경, 표현, 대사 창조 작업 등 각색 수업을 할 때 실제로 수행해야 하는 항목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 준다.³⁾ 안숙현은 각색의 교육적 의미와 효과를 설파하였고, 학습자들이 직접 각색한 낭독 대본으로 교실에서 수행한 낭독 공연에 대한 교육 효과를 분석했다.⁴⁾ 김의는 가상의 학습을 설정한 후에 소설 <원미동 사람들>을 각색한 희곡으로 연극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⁵⁾ 홍인영은 소설을 만화로 각색하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상상력의 양상을 고찰하고 상상력 교육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그는 서사의 이미지화에 대한 이해는 복합 매체 수용이 일상화된 문화의 소통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⁶⁾ 오관진은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동화를 희곡으로 각색하는 교육 내용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고찰하였다. 이 교육 내용을 교실에서 수행한 후에 학습자들이 만든 희곡에 나타난 문

2) 안숙현은 각색은 교육적 의미와 활용의 가치 그리고 그 효과가 크다며 “읽기와 글쓰기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놀이성을 지닌 열린 학습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안숙현, 「텍스트 각색과 낭독공연을 통한 국어교육 : 대학생들의 글쓰기·말하기 교육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제76집, 한국국어교육학회, 2007, pp.221-242.

3) 심상교, 위의 논문.

4) 안숙현, 위의 논문.

5) 김의, 「교육 연극을 활용한 소설 지도 방안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6) 홍인영, 「서사의 이미지화를 통한 상상력 교육 연구: 소설 각색 만화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6권 제9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6, pp.699-730.

제점을 도출했고, 교습 대안을 제시하였다.⁷⁾ 정은주는 이문구의 소설 <우리 동네>를 중심으로 교육 연극의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여 소설교육의 실제적인 방안을 제시하면서 각색의 의의와 교육 효과를 언급하였다.⁸⁾

이상의 선행 연구에서는 모두 각색을 활용한 수업 방안을 다루고 있지만 실제 교실에서 적용한 사례를 다룬 것은 안숙현과 오판진의 연구 밖에 없다. 나머지 연구는 각색을 수업에 활용했을 때를 가정하고 교육적 효과를 분석했거나, 가상의 학습을 대상으로 삼아 수업 방안을 모색했다. 그렇다보니 이들 연구에서 주장하는 교육 효과를 신뢰하는 데는 한계가 따른다. 오판진과 안숙현의 연구도 초등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삼거나, 대학생들의 글쓰기와 말하기 교육에 초점을 둔 연구이기 때문에 대학생을 상대로 명저의 이해와 감상을 대상 삼은 이 연구와는 성격이 다르다.

이렇듯 본 연구에서는 아직 연구가 미진한 분야라 할 수 있는 각색을 활용한 <명저읽기> 수업 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명저를 읽는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학습자 스스로 낭독 대본을 창작하고, 낭독 공연에 배우로 참여하는 수업 모형의 학습 효과를 도출할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대학 <명저읽기> 교과와 새로운 수업 모형을 창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각색은 특정 장르를 다른 장르 양식으로 구조하는 치환적 실천일 수 있

7) 오판진, 「희곡 각색 교육의 내용 연구-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교육연극학』 제9권 제1호, 2017, pp.1-21.

8) 정은주, 「교육연극을 활용한 소설교육 방안 연구: 이문구의 「우리 동네」를 중심으로」, 『敎員敎育』 제35권 제2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 2019, pp.217-238.

고, 그 자체로 다시-보기 행위이다. 어떤 면에서 다듬기와 가지치기에 몰두하는 편집 관례와 상응될 수 있다.⁹⁾ 각색을 하기 위해 각색자는 텍스트를 충분히 읽어야 하고, 자신의 관점에서 텍스트를 해체, 혹은 재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각색을 염두에 두고 독서를 할 때는 그냥 독서할 때보다도 텍스트를 유의미하게 감상할 수 있다. 또 “각색은 [그 텍스트에 대한] 기억, 실제 읽기에서 얻는 기억, 또는 문학 고전에서 그러하듯이 일반적으로 순환하는 기억을 이용한다.”¹⁰⁾ 각색은 “서로 다른 두 매체(혹은 장르)가 상호교차함에 따라 매체(혹은 장르)간 스토리 전환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각색을 하는 과정에서 원텍스트는 우리의 기억을 통해서 다층적인 방식으로 경험되는 것이다.¹¹⁾ 이렇듯 각색은 텍스트를 유의미하게 읽는데 도움을 주고, 다층적으로 경험하게 한다.

각색은 남의 글을 바탕 삼은 글쓰기이지만 자신의 언어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창작 행위¹²⁾라 할 수 있다. 각색을 할 때 원작은 창작의 지표로서 가능하며 각색자의 창작을 수월하게 돕는다. 그렇기에 학습자는 소설을 창작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학습 부담을 적게 느낀다. 학습자들은 이런 창작 활동을 하면서 문학적 상상력을 신장하며 종합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 다시 말해 희곡 각색은 공연 한 편을 올리기 위해 대본 한 편을 만드는 단순한 활동이 아니다. 희곡의 특성을 이해하는 능력까지 필요한 통합적이고, 고차원적인 문학 창작 활동이다.¹³⁾

9) 줄리 샌더스, 정문영·박희본 역, 『각색과 전유』, 동인, 2019, p.39.

10) 위의 책, p.52.

11) 서성은, 「린다 허천의 각색 담론」, 『우리어문연구』 제48집, 우리어문학회, 2014, pp.321-329.

12) 린다 허천은 “각색은 각색 작가의 창조적인 해석 혹은 해석적인 창조를 의미”한다고 했다. 서성은, 위의 논문, p.329.

13) 오판진, 위의 논문, p.3.

필자는 이런 생각에서 학습자들이 소설을 회곡으로 각색하면서 소설의 주제, 구성, 인물, 사건, 배경의 여러 요소를 직접 찾아내고, 자신의 상상력을 통해 소설적 인물의 행동과 사고 과정을 이해하고 분석¹⁴⁾하면서 소설을 내면화하도록 유도했다. 주어진 텍스트에 대하여 주체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인 내면성¹⁵⁾을 기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각색은 이런 교육 효과를 낼 수 있는 좋은 수업 도구이지만 학습자들의 상상력을 필요로 하는 문학 행위이기 때문에 교양과목으로 개설된 이 수업에 활용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학습자들의 학습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했다. 이런 생각에서 학습자들에게 소설의 화소를 제공해 각색할 내용을 지정해 주었고, 원작의 정신을 유지하면서 대화와 지문을 발췌하는 차원의 각색을 주문했다. 원작을 거의 훼손하지 않으면서 각색의 학습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학습자들이 학습 부담을 떨치고 흥미를 느끼면서 각색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Ⅲ. 각색을 활용한 수업 설계 및 수업 사례

1. 각색을 활용한 수업 설계

앞 장에서 언급한 이론적 배경에 따라 각색을 활용한 수업 모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주 1시간 수업 시수를 고려해 5주 차로 설계했다.

14) 심상교, 앞의 논문, p.338.

15) 우한용, 「문학독서교육의 이론과 실천을 위한 기반 검토」, 『先淸語文』 제32집,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2004, p.49.

〈표 1〉 각색을 활용한 수업 모형

수업 주차 및 수업 내용		교육적 의의	활동 내용	학습 형태
1주차	소설의 주요 화소 (핵심 내용) 찾기	소설의 서사 및 주제 파악	교수자가 소설의 핵심 내용을 묻는 질문을 제공하면 학습자는 이와 관련된 화소를 소설에서 찾음	모둠
2주차	각색 방법 강의	소설과 희곡 장르 특성 이해	소설과 희곡 장르의 차이점, 주제 부각 방법, 지문과 대화 창작법 등을 설명	전체
	각색 방법 토의	소설의 서사 흐름 파악 및 주요 내용 이해, 소설과 희곡 장르 특성 이해	소설의 주요 내용 이해 및 주제 부각 방법 논의, 소설 화소로 희곡의 대화와 지문 창작 방법 논의	모둠
	각색하기	소설과 희곡 장르 특성 이해, 문학적 상상력 신장	집에서 소설을 희곡으로 각색하기 (A4 45매 정도, 글자 크기 11포인트)	전체
3주차	낭독 대본 고르기	소설의 서사, 인물, 문체에 대한 이해도 제고	모둠별로 조원들이 각자 각색해온 대본을 공람한 후에 낭독 대본 한 편 고르기	모둠
	낭독 공연 방법 토의	수업에 대한 흥미 부여, 문학적 상상력 신장	배역 결정, 소품, 의상 등을 준비하는 토의	모둠
4주차	낭독 공연	수업에 대한 흥미 부여, 소설에 대한 이해도 신장	공연 순서를 뽑기로 정하고, 모둠별로 10여 분 동안 낭독 공연을 함,	모둠
5주차	주제로 토의하기	소설에 대한 이해도 제고, 소설의 내면화	모둠별 토의 후 발표, 교수자의 피드백	모둠

위 표의 수업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주 차에는 각 모둠별로 교수자가 제공한 주제와 관련된 소설의 화소를 찾는 활동을 한다. 학습자들은 모둠원들과 토의하면서 소설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는 화소를 찾는 과정에서 소설의 서사 및 주제를 파악할 수 있겠다. 2주 차에

는 먼저 교수자가 각색 방법에 대해 강의하고, 학습자들은 모둠별로 찾은 화소를 희곡으로 각색하는 방법에 대해 토의를 한다. 주제를 어떻게 부각할 것인지, 지문과 대화를 어떻게 창작할 것인지에 대해 토의하면서 소설의 주제와 문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겠다. 그리고 수업을 마친 후에 각자 각색을 하면서 문학적 상상력을 신장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3주차에는 모둠별로 조원들이 각자 창작해 온 각색 대본을 공람한 후에 낭독할 대본 한 편을 고른다. 그리고 낭독 공연 방법을 토의한다. 4주차에는 다섯 모둠이 순차적으로 낭독 공연을 한다. 다섯 모둠이 각각 10여 분 동안 교실 앞에 마련된 의자에 앉아 낭독한다. 5주차에는 토의 주제를 풀이하는 토의를 하고 발표한다.

위 수업 모형으로 수업을 할 때 학습자는 텍스트를 주체적으로 독해할 수 있고, 다각적으로 감상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1~2주 차 때 수행하는 ‘각색 활동’을 통해 텍스트의 핵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3~4주 차 때 수행하는 ‘낭독 공연’을 통해 텍스트의 핵심 내용을 재사유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끝으로 5주 차 때 수행하는 모듬 토의를 통해 지금까지 인식한 것을 내면화하면서 자아 성장을 꾀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다시 말해 이 수업 모형을 본 연구자가 의도한 대로 교실에 적용하면 학습자는 문학교육의 목표라 할 수 있는 심미성의 체험과 문학적 감수성을 함양¹⁶⁾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2. 각색을 활용한 수업 사례

위의 표에 제시된 수업 모형에 따라 2019년 2학기 J대학교 <명저읽기>

16) 하정일, 「‘문학’교육과 문학‘교육’-7차 및 문학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문학의 교육, 문학을 통한 교육』, 문학과지성사, 2009, p.252.

과목 수업을 했다. 이 <명저읽기> 수업에서는 <광장>, <아Q정전>, <그리스인 조르바> 등 3권의 소설을 낭독 공연을 통해 읽었다. <광장>과 <아Q정전> 수업은 필자가 제공한 낭독 대본을 낭독하는 공연을 했고, <그리스인 조르바>만 학습자들이 직접 각색한 낭독 대본으로 공연을 했다. 소설 세 작품을 낭독하면서 한 작품에만 학습자들에게 각색하게 한 이유는 각색 창작 활동의 학습 효과를 도출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학습자가 각색할 텍스트로 <그리스인 조르바>를 고른 이유는 지난 학기 같은 소설들로 수업을 한 후에 시험을 본 결과 <그리스인 조르바> 성적이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은 점과 장편 소설인 점을 감았했기 때문이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광장>으로 각색 활동을 한 후에 시험 성적이 가장 높으면 원래 독해하기 쉬운 텍스트라고 오해받을 수 있고,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아Q정전>의 경우는 유일하게 단편 소설인 까닭에 역시 비슷한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을 염려한 것이다. 48명을 대상으로 한 각색을 활용한 5주차 수업을 사례로 제시한다.

1주 차에는 본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질문 형식의 주제를 제시하고 소설에서 주제와 관련된 화소를 찾게 했다. 화소 찾기 활동은 소설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학습자들은 토의 주제와 관련된 화소를 찾는 과정을 통해 중심 사건과 부수적인 사건을 구분하게 되며, 혼자서 읽을 때 느끼지 못했던 인물의 행위가 지닌 뜻을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토의 주제와 관련된 화소를 찾는 과정에서 텍스트의 주제를 환기할 수 있고, 학습자들이 혼자서 읽으면서 간과한 내용의 참뜻을 토의를 통해 파악할 수도 있기 때문에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다. 또 같은 화소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경험을 하면서 텍스트 이해를 심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학습자들은 조별로 찾은 화소에 대해 발표를 하고 교수자는 피드백을 했다. 토의 주제와 소설 화소의 관련성을 진단했고, 미

흡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지시했다.

2주 차에는 본 교수자가 각색 이론을 먼저 짧게 강의하고, 학습자들은 각색 방법에 대해 토의했다. 이 과목은 교양선택 과목이므로 문학에 문외한인 학습자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각색의 개념과 각색 방법을 먼저 강의한 후에 각색 방법을 토의하도록 한 것이다.

각색에 대한 강의는 소설과 희곡의 장르적 차이를 쉽게 설명한 채트먼의 글로 시작했다. 연극, 영화, 만화, 마임쇼 등은 상대적으로 보여주기와 도상적인 것을 바탕으로 하는 서사물이며, 소설이나 서사시 등은 말하기를 바탕으로 하는 서사물¹⁷⁾인 점을 설명했다. 그리고 서사시의 오이디푸스는 희곡으로 각색되며 그의 전 생애가 재구성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며¹⁸⁾ 극문학의 여러 요소 가운데 사건의 결합, 즉 플롯이 가장 중요하다¹⁹⁾고 강조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글을 인용하며 강의를 마쳤다.

이 과목은 주 1시간 동안 수업하면서 명저 세 권을 읽어야 한다. 학습자들은 명저 세 권을 읽고 독후감을 써야 하기 때문에 학습 부담을 느끼며 수업에 임한다. 이런 과목 특성을 고려해 학습자들이 학습 시간 구애를 덜 받으며 각색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야 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소설을 희곡으로 각색하면서 텍스트의 대화와 지문을 살리도록 했다.²⁰⁾

17) 홍인영, 앞의 논문, p.703.

18) H. 포터 애벗, 우찬제 외 옮김, 『서사학 강의』, 문학과지성사, 2013, p.45.

19) 아리스토텔레스, 천병희 옮김, 『시학』, 문예출판사, 2011, p.52.

20) 학습자들의 각색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는 수업 방식은 박지희의 논고를 참고했다. 그는 “극본으로 만들 때도 대화체로 모두 바꿔 연극처럼 하기 보다는 줄거리가 이어 지도록 신경 쓰며 의미 있는 문장들을 중심으로” 대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관진, 「어린이를 위한 낭독공연의 유형 연구」, 『공연문화연구』 제37집, 2018, p.240. 박지희, 상원초 : 모두가 행복하고 더불어 함께하는 수업혁신, 2018. 초등 공모형 맞춤형 직무연수 자료집,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서울 상원초등학교, 2018, pp.100-115. 재인용.

각색 이론 강의를 들은 학습자들은 주제에 해당되는 소설의 화소를 어떻게 각색할 것인가에 대해 토의해야 한다. 그러면서 인물과 구조에 대해 분석하고, 주제를 부각할 수 있는 각색 방법론을 모색한다. 학습자들은 이런 토의 참여를 통해 문학 작품을 해석하는 방법을 익히고 문학에 대한 이해를 넓혀갈 뿐만 아니라 타인의 견해를 수용하여 자신의 입장을 조정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²¹⁾

수업을 마치면 학습자들은 모둠에서 합의한 각색 방법에 따라 화소를 각색해야 한다. 학습자들은 대부분 문학 전공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각색 창작을 부담스러워할 것이다. 하지만 이전 수업에서 모둠원들과 각색 방법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 본 교수자가 학습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텍스트의 대화와 지문을 거의 그대로 차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막상 각색 창작에 돌입하면 부담을 떨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수업은 텍스트와 비교할 수 있는 각색 작품을 창작하는 것이 학습 목표가 아니고, 각색 활동을 통해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²²⁾해 주려고 구안한 것이다. 이 사실을 학습자에게 환기해 주면 학습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3주 차 수업 때는 조원들이 개별적으로 각색해온 낭독 공연 대본 가운데 공연에 쓸 대본을 한 편 골랐다.

21) 정재림, 이남호, 앞의 논문, p.437.

22) 한귀은, 「'각색'을 통한 문학과 영상의 통합 교육 방안」, 『한국어와 문학』 제30집, 한국문학연구학회, 2006, p.5.

<자료 1> 학습자가 각색한 낭독 공연 대본 사례

----- 춤의 의미 -----

대화

화자: 조르바! 이리 와 보세요! 춤 좀 가르쳐 주세요!
 조르바가 팔쩍 뛰며 일어났다. 그의 얼굴이 황홀하게 빛나고 있었다.
 조르바: 춤이라고요, 두목? 정말 춤이라고 했소? 야호! 이리 오세요!
 화자: 조르바, 갑시다. 내 인생은 바뀌었어요. 자, 늙시다!

<중략>

지문

조르바의 춤을 바라보며 나는 처음으로 무게를 극복하려는 인간의 처절한 노력을 이해했다. 나는 조르바의 인내와 그 날랜, 궁지에 찬 모습에 감탄했다. 그의 기민하고 맹렬한 스텝은 모래 위에도 인간의 신들린 역사를 기록하고 있었다.

<중략>

내가 뜻밖의 해방감을 맛본 것은 정확하게 모든 것이 끝난 순간이었다. 엄청나게 복잡한 필연의 미궁에 들어 있다가 자유가 구석에서 놓고 있는 걸 발견한 것이었다. 나는 자유의 여신과 함께 놀았다.

----- 조르바의 여성관 -----

대화

조르바: 여자라하면...젠장. 눈이 빠지게 울고 싶어집니다요. 두목, 당신은 내가 여자를 너무 좋아한다고 놀리지요. 내가 어떻게 이것들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가슴만 쥐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손을 들어 버리는 이 가엾은 것들을 말합니다.에게 화 있을진저! 남자와 잘 수 있는데도 안 자는 여자에게 화 있을진저!

<중략>

조르바: 여자는 인간이 아니예요! 그런데 뭇 하러 감정을 품어? 여자는 불가사의한 거예요. 법률과 종교가 들고 나서봐야 여자에겐 해당 사항이 없어요. 여자에 대해서는 그런 걸 쓰면 안됩니다.

<중략>

조르바: 이 늙은 것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자, 유식한 양반, 이 이야기는 하고 넘어 갑시다. 여자에게 그 이상의 기쁨은 없는 법입니다. 진짜 여자에게는...잘 들어 두시오. 당신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데...진짜 여자는 남자에게서 얻어 내는 것보다 자기가 주는데 훨씬 더 큰 기쁨을 누리는 법입니다.

----- 화자의 인생관 -----

지문

세계란 무엇일까? 나는 궁금했다. 세상의 목적은 무엇이며 우리 한순간의 목숨이 어떻게 하여 세상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 조르바에 따르면, 인간이나 사물의 목적은 쾌락을 창조하는 것이었다. 혹자는 정신을 창조하는 것이라고 하겠지만 한 차원을 높여서 보면 똑같은 말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왜? 무슨 목적으로? 육체가 와해되어 버린 뒤에도 우리가 영혼이라고 부르는 것의 잔재가 남아 있을 수 있을까?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면 영원불멸을 그리는 우리의 끝없는 염원은 우리가 영원불멸하다는 사실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짧디 짧은 우리 인생에서 무엇인가 영원불멸한 것을 섬기는 데서 유래하는 것은 아닐까? 울고 싶은 기분이었다. 조르바의 말은 구구절절 울었다. 어릴 때부터 나는 초인에 관한 야망과 충동에 사로잡혀 이 세상일에 만족하지 못했

위 낭독 대본은 교수가 제공한 토의 주제인 ‘조르바와 화자가 추는 춤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조르바와 화자의 여성관은 어떻게 다릅니까?’, ‘조르바와 화자의 인생관은 어떻게 다릅니까?’와 관련된 소설의 대화와 지문을 학습자가 발췌해 각색한 것이다. 주제를 풀이하는데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소설의 대화와 지문을 포착해 간결하게 각색한 점이 돋보인다. 대화와 지문을 맥락이 닿도록 이어 쓰되 이은 부분을 표시하라고 주문했더니 <중략>이라고 쓰거나, ‘말줄임표’를 사용해 이은 부분을 표시했다. 그렇다 보니 발췌해 편집한 대본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느껴진다.²³⁾ 위 학생은 총 10개의 화소를 다루면서 3페이지 조금 넘는 대본을 작성했다. 낭독 공연 때 배우의 말이 청중에게 잘 전해지도록 명료하게 각색한 점은 돋보이지만, 대화와 지문 분량이 적어 주제를 독해하기에 미흡한 점은 아쉽다.

학습자들은 이렇듯 소설 지문을 발췌해 희곡 대본화하는 과정에서 소설의 서사, 문체 등을 감각적으로 감상할 수 있고, 대화를 발췌해 각색하는 과정을 통해서 인물 성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²⁴⁾ 그리고 각색하고자 하는 소설의 구성을 분석하여 극적 효과를 내도록 적절하게 장면을 재구성하기 때문에 소설 주제를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자신의 문해력을 신장시킬 수 있고, 나아가 자아 성찰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²⁵⁾

학습자들은 직접 각색 활동을 한 후에 같은 조원이 창작한 각색 대본을 공람하면서 소설을 혼자서 읽고 각색할 때 지나쳤던 텍스트의 의미를 포착

23)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교과목의 개요와 학습자의 조건을 고려해 가급적이면 소설 문체에 변형을 가하지 않고, 주제를 부각할 수 있는 대화와 지문을 발췌해 각색하게 했다. 지문을 대화로 변형하는 각색은 가급적 삼가고, 소설 지문과 대화가 조화를 이루어 주제가 부각될 수 있는 정도의 각색을 시킨 것이다.

24) 소설을 희곡으로 각색할 때는 소설 인물의 성격을 파악한 후 압축된 인물 몇 사람을 등장시켜야 하고, 캐릭터가 변질되지 않도록 일관성 있게 그려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은 소설의 인물 성격을 확연히 파악하게 된다. 심상교, 앞의 논문, pp.344-346.

25) 소설텍스트에 대한 학습자의 해석은 텍스트에 형상화된 세계를 참조로 하여 텍스트에 의해 열려진 사고의 길을 자신의 삶과 관련짓는 것이다. 홍인영, 「소설의 수사적 읽기 교육 연구를 위한 시론」, 『한민족어문학』 제80집, 한민족어문학회, 2018, p.218.

할 수 있다. 조원들 간에 토의를 통해 “다른 목소리를 경청하며, 상호작용을 통해 더 나은 해석을 구성해 나갈”²⁶⁾수 있는 것이다.

낭독 대본을 고른 후에 학습자들은 모둠별로 낭독 공연 준비 토의를 했다. 낭독 공연은 교실 환경을 최대한 이용하고 교실 앞 쪽에 있는 의자에 앉아 하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공연 상황에 따라 의상과 소품을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학습자들은 낭독 공연 준비 토의를 하면서 배역을 정하고, 소품과 의상 등을 누가 준비할 것인가를 논의했다.

4주 차 수업 때는 낭독 공연을 했다. 추첨을 통해 공연 순서를 정하고, 공연은 모둠별로 10분 정도 했다. 청중을 보고 의자에 앉아 대본을 보면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연기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광장>과 <아Q정전>은 필자가 제공한 낭독 대본으로, <그리스인 조르바>는 학습자들이 직접 각색한 낭독 대본을 사용했다. 학습자들의 낭독 공연 활동에 대해서는 본 연구자의 줄고²⁷⁾에서 밝힌 바 있고, 이 연구에서는 각색 활동의 학습 효과를 도출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생략한다.

5주 차 수업 때는 본 연구자가 1주 차 때 제공했던 질문 형식의 주제를 독해하는 모둠 토의를 했다. 학습자들은 그동안 각색을 위한 모둠 토의를 하면서 주제와 관련된 텍스트의 화소 분석을 마친 상태이고, 각색을 직접 하면서 토의 주제에 대해 대략적으로나마 파악하게 된다. 이런 상태에서 다시 같은 주제로 토의를 하므로 주제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리라

26) 이인화, 「문학토론에서 소설 해석의 양상에 관한 연구」, 『새국어교육』 제94집, 한국국어교육학회, 2013, p.255.

27) 본 연구자는 수년 동안 J대학교에서 <명저읽기> 분반을 개설해 소설 <광장>, <아Q정전>, <그리스인 조르바>를 학습자들과 읽고 있다. 2018년 2학기과 2019년 1학기 수업에서 낭독 공연을 활용해 세 소설을 읽었고, 수업의 학습 효과를 도출한 바 있다. 이 연구의 대상 수업에서도 같은 방식의 낭독 공연을 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생략한 것이다. 줄고, 「대학 교양교과로서의 고전읽기 수업모형 연구-조선대학교 <명저읽기>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제86집, 2019, pp.31-32.

기대한다.

이 수업에서는 소설 세 작품을 각각 5주차 동안 다루었다. <광장>과 <아Q정전>의 경우에 첫 주는 본 연구자가 작품을 소개하고, 독서감상문을 써 오게 했다. 나머지 4주 동안은 매주 낭독 공연을 한 후에 토의 주제 2~3개씩 모두 토의를 했다. 반면에, <그리스인 조르바>는 독서감상문을 쓰지 않고, 위에서 언급한 활동을 했다. 그리고 낭독 공연을 마치고 토의 주제에 대한 이해도 테스트를 위해 시험을 봤다. 다음 <자료 2>는 <그리스인 조르바>로 5주 차 수업을 마친 후에 치른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학습자의 시험지를 찍은 것이다.

<자료 2> 낭독 공연 후에 소설에 대한 이해도 평가를 위한 시험지 사례

작가는 이 소설에서 무엇을 나타내고자 했는가?	사회적인 요구에 영감이지 <u>안</u> 은 진정한 자유의지.
조르바와 화자의 인생관은 어떻게 다른가?	조르바는 사회적인 시선에 영감이지 않고 <u>본능</u> 에 충실한 사람이라면, 화자는 사회의 <u>자유</u> 에 자신을 수용시키고 이성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있다.
조르바와 화자가 말하는 '자유'의 의미는 무엇인가?	사회적 시선에 영감이지 <u>안</u> 은 진정한 자유, 스스로 선택하고 <u>본능</u> 에 따르는 것
조르바와 화자의 여성관은 어떻게 다른가?	조르바는 여성을 냉담과 <u>대항</u> 한 존재 여섯이 않으며 남성 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u>외적적인</u> 대상의 여정만이며 <u>회자</u> 또한 무사한 생각을 가지면서도 <u>극복적</u> 으로 여성을 대하고 있다.
화자와 조르바의 성격이 많이 다른데도 둘이 친한 이유는 무엇일까?	성격이 많이 다른 그 부분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u>상충</u> 시켜주며 <u>완전한</u> 존재로 느끼기 때문에.
자하리아가 수도원에 불을 지른 이유는 무엇인가?	종교라는 <u>사회적</u> 구속에서 <u>벗어날</u> 과 동시에 <u>수도원</u> 의 <u>차별</u> 에서 벗어나고 <u>싶어서</u> .
조르바와 화자의 종교관은 어떤가?	<u>종교</u> 란 <u>사회적</u> 으로 <u>안</u> 은 <u>구속</u> 이란 <u>사회</u> 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르바가 화자에게 약기를 준 이유는 무엇인가?	아직 <u>부족</u> 한 <u>스스로</u> 자신이 <u>완</u> 하는 <u>자유</u> 의 <u>삶</u> 을 <u>살</u> 라는 의미에서.
화자는 왜 '대지'를 강조할까?	<u>본능</u> 에서 <u>분리</u> 되지 <u>안</u> 은 <u>태초</u> 의 <u>모양</u> 과도 같은 <u>조르바</u> 를 <u>상징</u> 하게 위해서
작품에 그려진 흙이 상징하는 바는 무엇인가?	사회적 시선에 영감이지 <u>안</u> 은 <u>본능</u> 에 충실하는 <u>진정한</u> <u>자유</u>

위 시험문제는 본 교수자가 학습자들에게 학기 초에 토의 주제로 제공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이 수업의 목표 가운데 하나가 텍스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므로 소설 핵심 주제의 뜻을 묻는 질문으로 시험을 보는 것이다. 사실 위 시험지의 질문 문항은 지난 학기 때 학습자들이 토의해 생성한 것을 본 교수자가 다듬은 것이다. 이 수업의 학습 효과 도출을 위한 표본으로 삼고자 지난 학기 때 사용한 시험문제를 이번 학기 시험에도 사용했다. 수업을 종료하면서 독후감을 쓴 수업 방식과 각색을 활용한 수업 방식의 학습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학습자들에게 설문을 받고, 시험을 치르게 했다. 다음 장에서 이 수업의 학습 효과를 분석한다.

IV. 수업의 학습효과 분석

앞 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수업에서는 본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토의 주제를 제공하고, 토의 주제와 관련된 화소를 소설에서 찾아 각색하게 했다. 소설에서 화소를 찾는 일은 모둠별로 협력해서 하게 했고, 각색은 각자 창작해 오도록 과제를 냈다. 학습자들이 모둠별로 협력해 화소를 찾게 한 이유는 토론을 통해 “개인의 독특한 해석과 견해가 자연스럽게 공유되”고, “불명료하거나 모호한 생각들이 정리되고 조정”²⁸⁾ 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색을 개별적으로 하게 한 이유는 ‘창조적인 해석’²⁹⁾을 경험하면서 문학적 상상력을 발휘³⁰⁾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28) 정재림, 이남호, 「문학수업에서 토론의 가치와 효과」, 『한국문예비평연구』 제45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4, p.437.

29) 서성은, 앞의 논문, p.329.

30) 정은주, 앞의 논문, p.234.

이 연구는 소설을 읽는 수업을 할 때 학습자들이 수행한 각색 활동의 학습 효과를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래서 소설 세 편을 읽는 수업을 각각 마칠 때마다 학습자들에게 수업의 학습 효과를 묻는 시험을 보게 했다. 그리고 수업을 완전히 마친 후에는 학습 효과를 묻는 설문을 받았다. 먼저 48명이 작성한 설문을 분석해 제시한다.

플립 러닝을 마치면서 수업에 대한 학습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설문을 받았다. 먼저 교과목의 학습목표 달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을 제시했다.

교과목의 목표에 도달하였는지를 확인해보려고 설문을 받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자가 설계한 수업의 수업설계 의도대로 참본 연구자는 그리고 이 연구 목적에 따라 설문 문항을 각색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제시했다. 먼저 “<그리스인 조르바>를 읽는 수업을 할 때 ‘독후감 쓰기’ 대신에 ‘각색’을 했습니다. 이 활동은 명저의 이해와 감상에 도움이 되었나요?”라는 질문을 제시했다. 학습자들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표 2〉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2명(25%)	14명(29.16%)	10명(20.83%)	10명(20.83%)	2명(4.16%)

위 표를 보면 긍정적인 답변인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라고 답한 학습자가 54.16%로 과반수를 조금 넘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정적인 답변인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가 24.99%로 무시할 수 없는 수치이다. 이 결과는 학습자들이 수업 중에 수행한 ‘각색 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알리는 지표라 할 수 있지만, 부정적인 인식도 상존

하므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독후감 쓰기’와 ‘각색하기’ 가운데 어느 것이 명저의 이해와 감상에 더 도움 되었는가를 물었다. 이 문항은 두 활동에 대한 학습자 인식을 비교하기 위함이었다. 이에 대해 학습자들은 다음처럼 답했다.

<표 3>

학습 활동	독후감 쓰기	각색하기
답변 개수(48명)	34명(70.83%)	14명(29.16%)

위 표에 드러나듯이 학습자들은 두 배 이상 ‘독후감 쓰기’가 명저 이해에 더 도움되었다고 답했다. 이 결과는 ‘각색하기’를 새로운 학습 수단으로 모색한 필자를 난감하게 했다. 그리고 바로 앞 설문에서 과반수 넘는 인원이 각색 활동이 명저의 이해와 감상에 도움되었다고 응답했기 때문에 황당하기까지 했다. 이런 학습자 인식을 더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학습자들이 ‘독후감 쓰기’가 명저 이해에 더 도움되는 이유로 설문에 쓴 내용을 살폈다. 중복되는 내용을 빼고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각색하는 것보다 더 쉬워서’, ‘느낀 점을 쓰면서 나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서’, ‘작성 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 ‘독후감이 기억력에 의지를 많이 하게 해서’, ‘좀 더 여유롭게 책을 접할 수 있어서’, ‘책 전체 내용을 알 수 있어서’, ‘책을 넓게 이해할 수 있어서’, ‘생각을 정리하기 쉬워서’ 등이다.

이상 학생들의 이유를 통해 ‘독후감 쓰기’는 ‘각색하기’보다 수행하기가 쉽고, 읽는 책 전체를 이해할 수 있고, 생각을 정리하는데 도움되기 때문에 명저 이해에 더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한편 ‘각색하기’가

명저 이해에 도움된다고 한 학생들은 ‘핵심 내용 위주로 책을 읽을 수 있어서’, ‘독후감 쓸 때보다 책을 깊게 이해할 수 있어서’, ‘캐릭터 분석에 도움이 되어서’ 등의 의견을 냈다. 이상의 학생 의견을 범박하게 정리하면 ‘독후감 쓰기’는 책을 넓게 이해하는데 도움 되고, ‘각색하기’는 책을 깊게 이해하는데 더 도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습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고의 결과이기 때문에 향후에 <명저읽기> 수업을 할 때는 참고하면 도움되리라 믿는다. 명저를 읽힐 때는 ‘독후감 쓰기’와 ‘각색하기’ 활동을 병행하면서 각각의 장점을 살린 수업 방법을 모색하면 좋겠다.

다음으로 텍스트 이해도에 대한 학습자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소설을 각색하면서 명저 이해에 도움 되었다면 다음 중 어떤 항목에서 가장 도움받았나요?”라는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한 학습자들의 답변은 다음 표와 같다.

〈표 4〉

분류	인물 이해	줄거리 이해	구성 이해	문체 감상	주제 파악
답변 개수(50명)	22명(44%)	14명(28%)	4명(8%)	8명(16%)	2명(4%)

위 표를 보면 각색 창작 활동을 하면서 인물과 줄거리 이해에 도움받았다는 응답이 무려 72%를 차지했고, 주제 파악이 4%에 불과하다. 각색 창작 활동을 하면서 텍스트의 주제와 관련된 화소를 집중해 독서하고, 모둠 활동을 하면서 주제에 대하여 토의를 하는 등 텍스트의 주제를 다각적으로 다루었음에도 주제 파악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점은 의아했다. 이는 학습자들이 대화와 지문을 각색하면서 인물과 줄거리에 대한 이해도는 높일 수 있었지만, 주제는 이 둘보다 훨씬 심층적으로 사유해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 아닌가 싶다. 또 인물과 줄거리를 이해하는 것보다 주제 파악을 하는 것이 더 숙고해야 하는 사고 활동인 점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본다. 이 설문 결과는 명저 이해에 초점이 맞추어진 이 과목 개설 취지와 동떨어진 것이기에 극복해야 하는 과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수자가 수업 전략을 짤 때 과목의 목표를 더욱 반영해야 하겠고, 학습자들의 텍스트 이해 능력을 감안해 토의 주제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 수업을 종료하며 설문지 작성과 함께 토의 주제에 대한 이해도를 파악하기 위한 시험을 치렀다. 시험 점수는 10점 만점이고 주제 풀이의 정확도에 따라 점수를 매겼다. 평가를 한 결과 각색 활동을 한 <그리스인 조르바>는 평균 77.70점을 얻었다. <그리스인 조르바>처럼 낭독 공연을 했지만 각색을 하지 않은 <광장>과 <아Q정전>도 같은 방식으로 시험을 봤는데 <광장>은 평균 67.85점, <아Q정전>은 평균 70.76점을 얻었다. 각색 창작 활동을 한 <그리스인 조르바>가 독후감 쓰기를 한 소설들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다. 이는 앞선 설문 결과를 뒤집는 것이기에 놀라웠다. 위에서 살폈듯이 <표 2> 설문에서 ‘독후감 쓰기’와 ‘각색하기’ 활동 가운데 명저 이해와 감상에 도움된 것으로 독후감 쓰기를 두 배 이상 많이 택했지만 시험 성적은 정반대로 나왔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각색 활동의 수업 효과를 더욱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지난 학기 <그리스인 조르바> 시험 점수와 비교를 했다. 같은 문제로 시험을 본 지난 학기 <그리스인 조르바> 시험 성적은 평균 63.90점이었다. 같은 텍스트를 대상으로 거의 유사한 수업 방식으로 수업을 하면서 학습자들이 ‘독후감 쓰기’ 대신에 ‘각색’ 활동을 한 이번 학기 성적이 13.8점이 더 높게 나왔다. 그러니까 각색 활동을 한 <그리스인 조르바>는 같은 학기에 유사한 방식으로 수업을 한 다른 텍스트의 경우보다 더 학습 효과를 냈고, 직전 학기 같은 텍스트 수업보다도 더 높은 점수를 얻은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학 <명저읽기> 수업을 할 때 각색을 활용하면 학습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렇더라도 설문 응답에서 ‘독후감 쓰기’가 ‘각색하기’보다 학습 효과를 더 냈다고 답한 학습자들의 정서는 극복해야할 과제이다. 이는 학습자들이 종래의 읽기 수업 때 독후감 쓰기를 관행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각색하기를 불편하게 생각한 점이 부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즉 독후감 쓰기는 익숙한 에세이 쓰기 방식이지만 각색은 생소한 장르 글쓰기인 점이 영향을 끼친 것이다. 또 설문에서 ‘주제 관련 화소 찾기’와 ‘주제 부각’이 어려웠다고 답한 것으로 보아 각색을 활용한 수업이 더 까다로웠다고 느낀 점이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겠다.

이 수업에서 교수자가 지정한 텍스트 화소 위주로 독서를 한 점은 이 수업의 한계라 할 수 있다. 이는 성적을 패스·패일로 내는 과목인 점, 1학점 교양 선택인 점, 한 학기에 명저 3권을 읽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해 마련한 수업 방법이지만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앞 문단에서 밝힌 것처럼 독서 교육을 할 때 각색 창작 활동을 하면 명저 읽기 교과뿐 아니라 모든 읽기 수업에서 학습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믿는다.

V.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각색을 활용한 대학 <명저읽기> 수업의 학습 효과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각색을 활용한 수업 모형을 구안하고, 2019년 2학기 J대학 수업에 적용하여 학습 효과 및 시사점을 찾고자 했다. 본 연구자는 이 수업을 마치면서 학습 효과를 도출하고 개선점을 모색할 수 있는 설문을 받았다. 각색 창작을 활용한 수업의 학습 효과를 묻는 설문에는 과

반수를 조금 넘는 학습자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그리고 세 권의 소설 읽기 수업을 마치고 텍스트 이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형 시험을 봤다. 수업 시간에 토의하며 독해했던 주제를 똑같이 시험 문제로 냈는데 각색을 활용한 <그리스인 조르바> 수업이 77.7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는 <광장>보다는 9.85점 높은 점수이고, <아Q정전>보다는 6.94점 높은 점수이다. 그리고 이 수업 효과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학기에 동일한 텍스트로 <명저읽기> 수업을 한 분반의 시험 결과와 비교했더니 무려 13.8점이 더 높게 나왔다. 그러니까 각색 활동을 한 <그리스인 조르바>는 같은 학기에 유사한 방식으로 수업을 한 다른 텍스트의 경우보다 더 학습 효과를 냈고, 직전 학기 같은 텍스트 수업보다도 더 높은 점수를 얻은 것이다. 이를 통해 명저를 읽으며 각색 활동을 하면 학습 효과를 좋게 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대학에서 <명저읽기> 교과목을 운영할 때 학습자들이 소설을 희곡으로 각색하는 활동을 하면 텍스트 이해도를 향상할 수 있다. 이 수업 모형은 J대학교 <명저읽기> 교과목의 수업 환경을 고려해 구안한 것이지만 교실에서 소설을 읽는 수업이라면 학습 효과를 낼 개인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둘째, 학습자들은 수업 중에 수행한 ‘각색하기’보다 ‘독후감 쓰기’가 더 명저 이해에 도움이되었다고 설문에 답했다. 그렇지만 학습자들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두 활동은 각각 나름의 학습 효과를 발현했음을 알 수 있었다. 학습자들은 ‘독후감 쓰기’는 책을 넓게 이해하는데 도움 되고, ‘각색하기’는 책을 깊게 이해하는데 더 도움 된다고 답했다. 이를 통해 대학에서 명저를 읽힐 때는 ‘독후감 쓰기’와 ‘각색하기’ 활동을 병행하면서 각각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수업 방법을 모색하면 좋겠다.

셋째, 학습자들이 이 수업에서 수행한 활동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텍스트의 주제 파악을 꼽은 점은 풀어야 할 숙제라고 할 수 있겠다. 이는 명저 이해에 초점이 맞추어진 이 과목 개설 취지와 동떨어진 설문 결과이기 때문이다. 특히 본 교수자가 텍스트의 주제를 학습자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학습 방법을 수업에 적용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이는 본 연구자의 수업 전략이 치밀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이기 아쉬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수자가 수업 전략을 짤 때 과목의 목표를 더욱 반영해야 하겠고, 학습자들의 텍스트 이해 능력을 감안해 토의 주제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겠다.

【참고문헌】

- 김 의, 「교육 연극을 활용한 소설 지도 방안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3.
- 서성운, 「린다 허천의 각색 담론」, 『우리어문연구』 제48집, 우리어문학회, 2014, pp. 319-353. (UCIG704-001387, 2014, 48, 010)
- 심상교, 「각색을 통한 교육연극 수업」, 민병욱·심상교 편, 『교육연극의 이론과 실제』, 연극과인간, 2001.
- 아리스토텔레스, 천병희 옮김, 『시학』, 문예출판사, 2011, p.52.
- 안숙현, 「텍스트 각색과 낭독공연을 통한 국어교육 : 대학생들의 글쓰기·말하기 교육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제76집, 한국국어교육학회, 2007, pp.221-242. (UCIG704-001209, 2007, 76, 010)
- 오판진, 「희곡 각색 교육의 내용 연구-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교육연극학』 제9권 제1호, 2017, pp.1-21.
- 오판진, 「어린이를 위한 낭독공연의 유형 연구」, 『공연문화연구』 제37집, 2018, pp.223-247.
- 우한용, 「문학독서교육의 이론과 실천을 위한 기반 검토」, 『先淸語文』 제32집,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2004, pp.43-84.
- 이인화, 「문학토론에서 소설 해석의 양상에 관한 연구」, 『새국어교육』 제94집, 한국국어교육학회, 2013, p.255. (UCIG704-001209, 2013, 94, 011)
- 정은주, 「교육연극을 활용한 소설교육 방안 연구: 이문구의 「우리 동네」를 중심으로」, 『敎員教育』 제35권 제2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 2019, pp.217-238.
- 정재림, 이남호, 「문학수업에서 토론의 가치와 효과」, 『한국문예비평연구』 제45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4, p.437. (UCIG704-001096, 2014, 45, 012)
- 하정일, 「문학'교육'과 문학'교육' : 7차 및 문학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문학의 교육, 문학을 통한 교육』, 문학과지성사, 2009, pp.240-251.
- 한귀은, 「각색을 통한 문학과 영상의 통합 교육 방안」, 『한국어와 문학』 제30집, 한국문학연구학회, 2006, pp.495-526, UCIG704-000952, 2006, 1, 30, 008
- 홍인영, 「서사의 이미지화를 통한 상상력 교육 연구: 소설 각색 만화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6권 제9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6, pp.699-730. (UCIG704-001586, 2016, 16, 9, 004)

홍인영, 「소설의 수사적 읽기 교육 연구를 위한 시론」, 『한민족어문학』 제80집, 한민족어문학회, 2018, pp.41-71.

줄리 샌더스, 정문영·박희본 역, 『각색과 전유』, 동인, 2019, p.39.

H. 포터 애벗, 우찬제 외 역, 『서사학 강의』, 문학과지성사, 2013, p.45.

Abstract

A Dramatized <Masterpiece Reading> Program and Learning Effects

Kim, Young-hag

This study investigates the learning effects of a dramatized “Masterpiece-Reading” program for university students. We developed a reading program using dramatization and included it in the J college program in the second semester of 2019. Then its learning effects were investigated and suggestions for future applications of the program were offered. A survey of the subjects revealed that the program enhanced learning. Based on that finding, we presented the following comments and suggestions:

First, this program model was designed based on the class environment in J university, but it should be applied as a university masterpiece reading program, dramatizing novels in the classroom to enhance learning effects.

Second, the subjects responded that writing book reviews is more helpful to understanding a masterpiece than is dramatization. However, the responses indicated that both activities had their own learning effects, as indicated by the subjects' responses that writing book reviews helped them understand texts comprehensively and that dramatizing novels helped them identify the deep meaning of texts. Therefore we suggest that a university masterpiece-reading program should be designed to include both writing book reviews and dramatization.

Third, the subjects responded that the most difficult thing in the reading program was identifying themes in the texts they read. This finding was unfortunate, since the study included diverse learning

methods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textual themes, although they apparently were not effective. When the ongoing program strategy is developed, the students' learning objectives and discussion subjects should be geared to the students' cognitive levels.

Key Word : masterpiece reading, dramatization, book review, program model, reading performance, Zorba the Greek, teaching strategy

김영학

소속 : 조선대학교 자유전공학부 부교수

전자우편 : kyh9263@chosun.ac.kr

이 논문은 2020년 11월 21일 투고되어
2020년 12월 15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20년 12월 18일 게재 확정됨.